

##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서기동 구례군수

## 지리산권 광역 녹색개발 원년



“녹색개발을 통해 문화와 관광, 휴양과 레저가 있는 복합도시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지리산권에서도 공간자원분야 경쟁력 전국 12위의 구례가 지금까지 자연에 대해 보존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자연과 어울리는 녹색개발을 시작해야 한다”며 새해 군정의 큰 틀을 밝혔다.

지난 2006년 취임 당시 1천284억원에 불과한 예산이 지난해 첫 2

## 샘물산업 마케팅 강화

천억원 시대를 열고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순부제가 전혀 없는 살림살이를 일궈냈다고 자평했다.

서 군수는 군이 지향하는 녹색 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지리산 온천지구에서 성삼재와 노고단을 잇는 총 연장 4.5km의 국내 최장 케이블카 설치사업 계획을 들었다.

환경단체 등에서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지리산을 가로 지르는 일반도로보다 오히려 자연훼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인 민름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례군 광의면과 산

동면 일대 113ha에 자리잡을 전국 최대 규모의 야생화생태공원 조성을 비롯해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용방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도 구례군이 새해에 주력 추진할 녹색개발 사업이다.

서 군수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구례군민의 숙원이라고 강조

유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17년까지 완료된다.

용방농공단지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용방면 일원에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7월 분양공고를 내고 2011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 군수는 “구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깨끗하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 공동브랜드 ‘산수려’를 개발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여 성

## 2012년 도민체전 유치

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 야생화 R&D(연구개발)사업과 산수유 클러스터 사업 등을 주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3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 산업도 군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가 개장되면서 최적의 전시훈련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올해에만 1만5천여명의 선수들이 예약한 상태다. 이같은 맥락에서 오는 2012년 도민체전의 유치 의사도 강하게 피력했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의 야생화생태공원 조성,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용방농공단지 조성 사업

## 스포츠산업 적극 육성

등도 구례군이 새해에 주력 추진할 녹색개발 사업이다.

구례군 광의면과 산동면 일대 113ha에 자리 잡을 야생화생태공원은 318억원을 들여 야생화테마랜드와 생태숲, 수목원과 자생식물원, 자연휴양림 등을 갖춰 오는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지리산 역사 문화체험단지와 산수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 우뚝 솟은 주탑

‘이순신 대교’공사가 주탑 270m 가운데 170m가 올라가는 등 공정률 30%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다. 주탑과 주탑사이 경간 거리가 1천545m에 달해 현수교로서는 세계에서 4번째로 길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위용 드러낸 ‘이순신 대교’

〈광양~묘도~여수〉

공정률 30%…총길이 8.5km 주탑높이 270m 광양항 랜드마크로

광양~여수를 잇는 ‘이순신 대교’가 동북아 물류·관광허브를 앞당기고 광양항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금호

동~묘도~여수를 잇는 ‘이순신 대교’의 공정률은 30%로 점차 위용을 갖춰가고 있다.

현수교인 ‘이순신 대교’는 총길이 8.547km로 주교각 사이가 1천545m,

주탑 높이인 270m 규모로 9천6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 송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 인천대교(사장교 방식)도 경간 거리는 800m에 불과하다.

지난 2007년 착공해 2012년 10월

준공 계획이지만 2012년 5월 이전까지 임시개통을 목표로 주·야간 공사

가 한창 진행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4

대강 사업 등과 맞물려 예산확보에

난항이 예상돼 재원마련에 따라 준

공시기는 유동적이다.

또한 광양시는 아름다운 ‘이순신

대교’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교 인근인 중마동 공유수면매립지

2만7828㎡의 근린공원에 3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광양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박물관은 이순신 대교를 조

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비롯해 이순

신군 기념관, 교량의 발달사와 종류, 교량 흥보 및 역사관, 광양시 흥보관, 휴게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전남도와 재원조달 협의를 통해 박물관내에 카페와 휴게 음식점, 기념품·특산물 판매장과 함께 야외 조각공원, 주차장, 화장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특히 박물관 인근에 철조 각공원 조성을 포스코와 협의중에 있어 연계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록 시 향토시국장은 “이순신 대교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재원조달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흥보관이 건립되면 호남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세 알 글

## “기능인력 양성·일자리 창출 전력”

## 문기표 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성장 동력과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인력개발메카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문기표(56) 한국 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는 “기능인력의 명품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에 전략목표를 두고 산학연과 연계된 기능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화순 출신인 문 지사장은 조선대 기계설비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79년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 공단본부, 광주지역본부, 목포지사장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최현숙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등산.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순천교도소 재소자 25명 ‘학사모’

순천교도소(소장 이용배) 수형자 25명이 최근 전문학사과정을 통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

순천교도소는 최근 소내 대강당에

서 2009학년도 순천청암대학 선평캡

퍼스 호텔외식조리과 제 6회 졸업식

을 가졌다.

이번 학위를 수여받은 수형자들은

2년간의 전문학사과정을 통해 다양

한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한식·양식·일식조리 기능사, 제과·

제빵기능사 등 7종의 관련 전문자

격증을 취득했다.

순천교도소와 순천 청암대학은

지난 2003년 1월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하고 교도소 내에 선평캡퍼스를 설

치, 6차례에 걸쳐 170명의 졸업생

(795건)의 조리관련 자격증 취득)을 배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모(35)씨는 20대 초반의 나

이에 무기장역을 선고받고 좌절의 시

간을 보내다 입학 후 한식 등 4종의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용배 소장은 “현대교정은 수령

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로 출소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재범

을 방지하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光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본부장 김동호 국장

김계중 국장

주기중 부국장

박양규 부장

이진택 부장

박영진 차장

김동중 기자

김철수 기자

박성태 기자

하태민 기자

## 배드민턴 강사 재계약 특혜 의혹

## 순천시 특정강사 9년 연속 계약…수강생들 반발

순천시 생활체육 배드민턴강사 재계약의 불투명과 강사 자질문이 거론되면서 공개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순천시 체육시설사업소는 에어로빅과 수영 종목은 공개채용하면서도 배드민턴은 최근 강사 J씨(46)와 6개월간 재계약을 체결했다.

강사 J씨는 지난 2001년 10월 채용돼 6개월마다 재계약하며 9년동안 수

강생들을 지도해 왔다.

이에 대해 일부 수강생들은 ‘9년동안 J 강사가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의 공개채용도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J 강사는 관련사업을 하면서도 배드민턴은 최근 강사 J씨(46)와 6개월간 재계약을 체결했다.

강사 J씨는 지난 2001년 10월 채용돼 6개월마다 재계약하며 9년동안 수

강생들을 지도해 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대인동삼일부동산

☎ (FAX) 223-1772 월 011-802-2532

(광주은행 신분행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 좋은 자리에 상가

## 건물을 싸게 사설분

상가 전문소기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증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